

##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대대적 기념행사

### 대구시, 민·관 공동참여 추진위 구성키로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를 예정이다.

구한말인 1907년 어려운 나라를 지키고자 대구에서 접화, 전국적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은 올해로 100년을 맞게 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구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채보상운동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대구시는 오늘날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함께 국채보상운동을 전국화해 국채보상운동의 참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세워 두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사 '금모으기 운동'으로 재현된 국채

보상운동의 정신은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21일 오전 10시 EXCO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념주간(2.21~2.28)동안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